

싱그러운 꽃과 과일 가득한 우리지역 축제

◆ 논산 “딸기 축제”



4월 11일부터 13일까지 논산천 둔치 및 딸기밭에서는 '2008 논산 딸기축제'가 열린다. 봄별 아래 빨갭게 익은 딸기는 그 색깔으로도 찾아보기 충분한 축제다. 딸기떡 길게 뽑기와 기예단 시범, 불꽃놀이 등 무대행사를 비롯해 딸기밭에서는 수확체험행사도 펼쳐진다.

축제관련 자세한 내용은 홍보 홈페이지(www.nsfestival.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청양 “칠갑산 봄꽃 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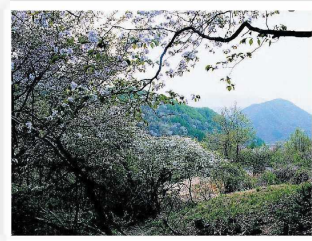
4월 25일부터 30일까지 아름다운 봄꽃에 폭 빠질 수 있는 축제가 청양에서 개최된다. 청양군과 고운식물원이 함께 주최하는 이번 축제는 지천100세공원과 고운식물원에서 펼쳐진다.

100세공원에서는 다양한 문화행사와 재래시장 웰빙투어, 두부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행사가 준비되고 고운식물원에서는 어린이 인형극과 허브비누 만들기 등의 체험행사가 열린다. 칠갑산 등반계획과 함께 축제참가 일정을 잘 챙기면 추억 가득한 봄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축제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칠갑산봄꽃축제추진위원회 (041) 940-2660~5 혹은

청양군 홈페이지(www.chcongyang.go.kr)로 하면 된다.



◆ 금산 “비단고을산꽃축제”

꽃피는 봄에 흐드러지게 핀 꽃구경을 하고 싶다면 금산군에서 열리는 '비단고을산꽃축제'를 권한다. 올해는 아직 개화시기를 예측 못 해 정확한 일정이 나오지는 않았다. 그러나 4월 중·하순이면 축제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꽃구경과 함께 다양한 민속체험 행사도 마련된다. 송계대방놀이를 비롯한 다양한 공연과 화전 구워 먹기, 나부 곤충 만들기 등 가족단위로 참가해도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축제 문의는 041-750-2114 혹은 금산군 홈페이지 (www.gcumsan.go.kr)에 들르면 알 수 있다.

◆ 연기 “여름사랑 수박축제”

6월 초, 연기군 동면에서는 시원한 수박축제가 열린다. 축제이름도 ‘여름사랑 수박축제’로 이름을 조용히 날려버릴 수 있을 것 같다. 동면수박작목반에서 주최를 한다니 푸짐한 인심을 기대해 볼만 하다.



수박 무게 맞추기, 수박 빨리 먹기 등 별스럽지 않은 이벤트 같지만 참가해보면 나름 재미있다. 동면지역 수박은 일조량이 많아 육질이 치밀하고 당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기군에 간 김에 행정중심복합도시 홍보관에 한 번 둘러보는 것도 좋겠다.

축제에 궁금한 사항은 연기군청 041-861-2114, 혹은 홈페이지(www.yeongi.go.kr)로 문의하면 된다.



2008년 충남은 그 어느 해보다 지역축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기름유출사고로 인해 지역경기가 주춤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이 위기를 기회의 발판으로 삼아 한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는 소망과 의지가 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 지역의 축제가 무엇이 있고, 또 언제, 어디서 열리는지 알지 못해 축제를 놓쳐버리는 경우도 종종 있어 아쉬워하곤 한다.

그래서 우리 열린충남에서는 “충남축제여행기” 코너를 새로 마련하여 우리 지역의 우수한 지역축제를 널리 알리고 나아가 추억과 행복을 만드는 손에 꼽힐만한 축제로 거듭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앞으로도 우리지역 축제를 직접 찾아가 체험하며 맛깔스런 글을 써주실 월간토마토 이용원 편집심장님께 고마움을 전한다.

- 편집자주 -